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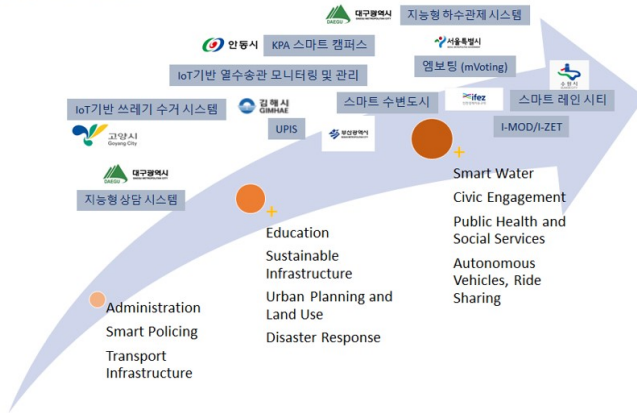
한국IDC,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스마트 시티 시장 도전과 기회 동시에 직면

2020년 5월 13일, 한국 - IT 시장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인터내셔널데이터코퍼레이션코리아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Korea Ltd., 이하 한국IDC(<https://www.idc.com/kr>))는 최근 발간한 ‘국내 스마트 시티 시장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국내 스마트 시티 산업 현황과 시장의 발전 방향 및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한국IDC는 보고서에서 최근 국내 스마트 시티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ICT인프라 공급자 주도형 개발에서 시민 체감형 서비스 개발로의 사업의 초점 변화이다. 이를 통해 시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버텀업 방식으로 스마트 도시민의 경험을 강화하고 시 전체의 공감을 통해 도시를 개발하는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다. 둘째는 스마트 시티 산업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 산업의 집합체 역할을 하는 도시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파급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영역으로의 스마트 시티 서비스 확산이다. U시티부터 시작된 국내 스마트 시티는 택지개발부터 도시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조성하면서 과거에는 ICT자원, 행정, 교통, 치안 서비스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기 구축된 서비스의 고도화와 함께 교육, 문화, 행정, 시민참여, 스마트 워터, 공중 보건 등 다양한 영역으로 스마트 도시 서비스가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Figure 1

국내 스마트 시티 서비스 현황



Source: IDC, 2020

그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로 인한 각 국가의 대응이 화두가 되면서 방역 체계 구축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생활 환경 및 양식의 변화에 대응하는 포스트 코로나19 방안 구축이 스마트 시티 산업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해서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사업에서 국토교통부, 질병관리본부가 협력하였으며 경찰청, 통신사,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까지 민관의 여러 이해관계자간 협력체계가 갖추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스마트 시티 발전 저해요인중 하나였던 정보 및 조직간 사일로(Silo)를 완화하면서 상황에 맞는 유연한 협력체계 구축의 좋은 예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중앙 정부 주도의 정보 취합과 공유가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를 담보로 하고 있어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관련 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완 그리고 사회문화적 합의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촉발된 도시 생활 패턴의 변화에 대응하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사회 전반의 언택트 추세는 스마트 시티 행정, 운영 그리고 대시민 서비스 전반에 변화를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진료, 로봇시진료, 보건소 시상담사 등 당장의 코로나 대응 움직임외에도 일반적인 도시 행정 및 운영과 시민의 생활에서도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외부 업체 공모 사업을 비대면 영상 사업설명회를 통해 검토하고 초중고의 온라인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대신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용이 증가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IDC의 김경민 수석연구원은 "IoT, 빅데이터, AI 등의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데이터가 통찰력을 지닌 정보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스마트 시티의 국내 상황은 공급자 주도에서 기업 및 시민 중심으로 분명한 이니셔티브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한단계 진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직 및 정보의 사일로(silo), 그리고 규제 및 개인정보보호 등은 계속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 가운데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는 이러한 국내 스마트 시티의 성숙도를 평가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직간 데이터 공유는 사일로를 완화하면서 한단계 발전된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생성시키고 있는 반면 사생활 침해라는 사회적 안건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언택트 트렌드 대비와 함께 기후변화, 환경 오염 등으로 예

기치않은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확산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시 회복탄력성에 기반한 향후 도시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IDC는 웹사이트에서 국내 스마트 시티 시장 트렌드에 대한 브리핑을 제공한다. 해당 웹사이트(<https://bit.ly/COVID19IDCupdate2>)에 방문하여 등록 후 시청이 가능하다.<끝>

[NOTE]

이번에 발간된 [Korea Smart City Market Dynamics: Facing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at the Same Time] 보고서는 스마트 시티 산업의 국내 현황을 업데이트 하면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Pandemic) 상황속에서 시장의 발전 방향과 도전과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 시장 참여자들에게 제언을 한다.

About IDC

IDC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IT 및 통신, 컨슈머 테크놀로지 부문 세계 최고의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입니다. 현재 전세계 110여개 국가에 1100명 이상의 시장 분석 전문가를 두고 있으며 기술 및 산업, 트렌드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DC의 분석 정보와 인사이트를 통해 고객들은 시장 상황과 추이를 파악하고 최신 이슈들을 업무에 신속하게 반영하며, 사실 기반의 의사 결정 및 마케팅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합니다. IDC는 1964년 설립되었으며, 세계적인 테크놀로지 부문의 미디어 및 리서치, 이벤트 그룹인 IDG

의 자회사입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www.idc.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witter: @IDC)

한국IDC(<http://www.idc.com/kr>)는 1997년 현지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해외정보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된 시장조사 모델을 채택, 여기에 GLOCAL(Global+Local) 모델을 효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 연구원 및 폭 넓은 시장 조사와 수년간 축적된 연구 분석을 토대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전세계 110여 개국에 걸친 IDC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규 리서치 서비스에서부터 커스텀 컨설팅, 이벤트를 포함한 마케팅 솔루션에 이르는 종합적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DC is a subsidiary of IDG, the world's leading technology media, research, and events company. Additional information can be found at www.idc.com. All product and company names may b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holders.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Min Kim(###)
mkim@idc.com
+8225504346
Yoona Jung (###)
yjung@idc.com
+8225504321